

## 덴마크 대일 돼지고기 수출 1위 자리 탈환

덴마크가 미국을 제치고 대일 돼지고기 수출 1위 자리를 탈환했다. 96년만 제외하고 97년까지 줄곧 미국보다 더 많은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던 덴마크가 금년 5월을 기점으로 미국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로 올라섰다.

일본 대장성이 발표한 통관자료에 따르면, 5월까지 덴마크는 전년 동기보다 151.4% 증가한 72,826톤의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하여 66,026톤을 수출(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한 미국보다 6천8백여톤을 더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이 구제역으로 수출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대만이 1위, 덴마크가 2위, 미국이 3위의 대일 돼지고기 수출국이었다.

## 98년 돼지고기 141만톤 수출

덴마크는 98년에 총 141만4천톤(지육 중량으로 환산-생돈도 포함)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덴마크 도축업조합에 따르면, 98년 덴마크의 돼지고기 수출물량은 전년에 비해 2만6천톤이 증가했으며, 수출물량중 49%인 69만2천톤이 EU 역내로 수출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12만8천톤을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만7천톤 감소한 양이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러시아의 경제위기로 정체되었다. 이로 인해 EU는 작년 9월말 돼지고기 민간 재고계획을 도입하였다.

## 미국 NPPC 돼지고기 처리공장 건설 추진

미국 돼지고기 생산자 단체인 NPPC가 미국 내 감소하는 돼지고기 처리공장의 도축처리 능력을 보완하고, 비육돈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산자 협동조합 방식에 의한 돼지고기 처리공장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지난 6월20일 발표했다.

NPPC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이후 계속되어온 미국의 기록적인 비육돈 가격 침체가 돼지고기 처리공장의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생산자협동조합의 수, 돈육처리공장 설치장소 등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NPPC 회장은 계획 초기단계로서 3개의 돈육처리공장 건설을 제안함과 함께, 1일 8천두 내지 6천두 규모의 도축처리 능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정부, 양돈농가에 1억달러 추가 보조금 지급

미 정부 관계자는 낮은 돼지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8월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1억달러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지원책은 8월9일부터 소규모나 중간규모 농가에 적용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양돈농가는 약 2,500여 농가로 추정된다.

해당농가들은 지난 6개월간 출하한 돼지 지육당 10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돼지 가격 하락은 특히 소규모 농가에 피해를 주었으며, 이들에게 추가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정부는 올해 초 지난 10년간 돼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5천만달러의 지원금(농가당 5천달러)을 양돈농가에 지급했었다.

## 돼지 태아세포 뇌 손상 치료에 이용

### -시술 파킨슨병 환자들 증세 20% 호전

돼지의 태아세포가 뇌졸중, 파킨슨병, 헌팅턴병으로 발생한 뇌 손상을 치료하는데 실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 있는 생물공학회사인 디아크린사의 세포이식연구실장 조너선 딘스모아 박사는 최근 매사추세츠 생물공학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뇌 손상 환자들이 돼지 태아세포를 이식받은 후 증세 호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딘스모아 박사는 매사추세츠 통합병원이 특허를 획득한 항체기술을 이용, 이식되는 돼지 태아세포를 특수처리함으로써 거부반응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딘스모아 박사는 디아크린사가 개발한 돼지 태아의 '신경세포-PD'를 12명의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반쪽 뇌 3곳에 1인당 1천2백만개

를 이식하고 2년동안 지켜본 결과, 이들의 증세가 20% 정도 호전됐다고 말했다.

## 네덜란드 돼지 사육두수 삭감계획 중단

### -양돈 생산자단체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

네덜란드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중인 돼지 생산두수 삭감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네덜란드 양돈 생산자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98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돼지 생산 재편법에 대해 반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는데, 이에 따라 98년부터 2000년까지 돼지 사육두수를 20~25% 삭감한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이 중단되게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는 98년 4월, 2000년까지 환경오염물질인 인산염을 25% 삭감하기 위한 돼지 생산 재편법을 제정해 98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었다. 인산염 삭감 계획은 1단계로 98년에 10%를 삭감하고, 2단계로 2000년까지 15%를 삭감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인산염 삭감계획에 따라 양돈농가들로부터 돼지 생산권을 수매, 회수함으로써 돼지 사육두수가 2000년까지는 2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돼지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생산자단체가 만족스러운 정부의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돼지 생산권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한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법률 집행이 정지되어 돼지 삭감계획을 의무화 하고 있던 돼지 생산권 10%가 생산자에게 반환되었고, 돼지 사육두수 삭감계획은 중단되었다.

## 일본 DNA로 흑돈속 판별 기술 개발

일본 축산시험장은 6월15일 DNA를 이용해 흑돈(버크셔)과 백색돈(대요크셔, 랜드레이스),

갈색돈(듀록)의 고기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기술은 털 색깔에 관련이 있는 2개의 유전자 DNA 배열의 품종간 차이점을 이용해서 개발했는데, 이로써 도축후 식육이 된 단계에서도 흑돈과 백색돈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축산시험장은 색소 세포 합성에 관여하는 멜라노사이트 자극 호르몬 리셉터 유전자와 털 색깔에 의해 만들어져 나오는 문양에 관계하는 c-KIT 유전자 2개의 DNA 배열을 측정해서 흑돈과 백색돈, 갈색돈 등 각 품종의 특이적인 배열(DNA다형)을 알아냈다. 축산시험장은 이 2종류의 유전자 다형정보를 조합해서 식육단계에서도 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흑돈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일반 돼지고기보다 20~60%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 흑돈육 둔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 중국 WTO 가입시 돈육 수입관세 12%로 인하

최근 중국이 미국과 식육수입 금지조치 해제에 따른 협정을 조인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축산물 수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시 UR협정에 의거, 오는 2004년까지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될 경우, 식육의 최저 수입관세는 돼지고기가 현행 20%에서 12%로, 쇠고기는 45%에서 12%로, 가금육은 20%에서 10%로 각각 인하되게 된다.

## 벨기에 사료 다이옥신 오염원으로 엔진오일 추정

벨기에 검찰 당국자는 6월22일, 벨기에 남부에 있는 사용이 끝난 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회

수업체인 호그라 회사로부터 채취한 기름을 분석한 결과 고농도의 다이옥신과 PCB가 검출된 것을 밝혀냈다. 또한 이것은 호그라사가 회수한 기름 가운데 엔진오일이 혼합된 결과일 공산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이옥신 문제에서는 지금까지 겐트에 있는 헬케스트사가 사용이 끝난 식용유와 동물성 유지로부터 생산한 가축사료 원료의 기름이 오염원으로 보고 있지만, 헬케스트사에 기름을 납품하고 있는 호그라사 안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제1오염원은 호그라사로 보여진다.

## 축산농민들 다이옥신 보상 촉구 강력 시위

벨기에 농민 4,000여명이 최근 다이옥신 파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가 피해보상마저 소극적이라며 브뤼셀에서 강력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축산농민들은 이날 '소비자들의 건강, 우리들의 생계', '농민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달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와 유럽연합에 대해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도 요구했다.

이번 다이옥신 파동에 따른 벨기에 정부의 피해 추정액은 600억프랑(한화 약 2조2천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책정한 농민에 대한 보상금액은 고작 이의 10분의 1 수준인 60억프랑(한화 약 2천2백억원)에 그쳐 축산농민 단체와 농민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 EU 15개국 농업장관 축사환경 개선 합의

'가축도 쾌적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국 농업장관은 가축환경이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며, 가축환경 보호를 위한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6월15일 전격 합의했다. EU 농업장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말 시작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추가 협상에 가축 환경보호 문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과적하지 못한 가축 환경 때문에 사료의 오염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벨기에에서 야기된 다이옥신 오염 파동으로 당초 예상을 깨고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EU는 구식의 낡은 축사를 2012년부터 강제로 폐쇄하고, 2003년부터는 구식 축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등 축사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이 부과된다.

## 돼지고기 민간재고 계약물량 28만2천톤

돼지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EU(유럽연합)가 98년 9월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돼지고기 민간재고 계획은 금년 4월까지 28만2천톤이 계약되었다. EU는 계약물량중 19만톤이 금년 9월까지 출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돼지고기 민간재고 사업은 사전에 4, 5, 6개월로 정해진 재고기간을 선택해서 소정의 민간 시설에 보관하다 재고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시중에 방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보조금은 부위별, 재고기간별로 정해져 있는데, 어깨부위는 6개월 보관시 최고액인 톤당 60달러를 받고, 반도체는 58불, 후지와 등심, 삼겹살은 35불, 기타는 46불이다.

유럽연합은 당초 재고물량 전체에 대해 제3국으로의 수출을 의무화 했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취소되었다. 시중 방출은 4개월이 지난 금년 2월부터 출고가 시작되었는데, 6개월 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출고는 4월부

터이다. EU 추정으로는 금년 9월까지 8개월간 19만톤이 출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별 재고량은 덴마크가 10만9천톤(39%)으로 가장 많고, 품목별로는 삼겹살이 가장 많다.

## 싱가포르 호주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 급증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3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말레이시아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시켜 왔는데, 이후 호주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수입한 냉장 돼지고기량은 하루 평균 87kg이었으나, 지난 3월 이후 타국산 냉장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여 4월에는 24톤, 5월에는 29톤이 수입되었고 이중 대부분이 호주산이었다.

한편, 호주산 냉장 돼지고기의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여 앞으로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수입액은 7천2백만 싱가포르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WTO EU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 허용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12일 미국과 캐나다의 EU에 대한 보복관세를 허용해 미국은 연간 1억1,680만달러, 캐나다는 1,130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 6월 미국측이 2억2백만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에 EU측이 반발, WTO에 중재를 요청한 결과 책정된 금액이다.

미국은 EU측에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1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해 왔었으며, 3월말에 9억달러의 관세 부과 상품목록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양돈**

